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5호 【루계 제2556호】

주체108(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음력 7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 무기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최근 조선로동당의 직접적인 지도와 세심한 관심속에 이룩되고있는 첨단무기개발성과는 주체적국방공업발전사에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이며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커다란 사변들이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새 무기 시험사격에 또다시 달려나온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은 우리식의 새로운 무기체계개발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시며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이른새벽에도 찾아오시여 국방력강화의 자랑찬 승리의 폭음을 련이어 울려나갈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와 영예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면서 조선로동당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장령으로부터 위급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칭호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표창승진시켜주시는 원수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에 기어이 더 높은 첨단국방과학기술의 성과로 보답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시험사격을 함께 지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또다시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눈부신 섬광을 내뿜는 주체탄들이 대지를 박차고 기운차게 날아올랐다.

국방과학자들은 이번 시험사격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무기체계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굳힐수 있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이 최근에 당에서 구상하고있던 주요군사적타격수단들을 최단기간내에 개발해내고 신비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한것만 보아도 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정도를 가늠할수 있으며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 또한 높은 수준에서 완비되여가고있음을 그대로 실증해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국방건설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를 견지해왔으며 최근시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과학과 기술, 우리의 힘에 토대한 주체적국방건설발전방향에 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국방건설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철벽으로 보위하고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강력한 국방력이 믿음직하게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목표이라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계별 점령목표들은 이미 정책적인 과업으로 시달되였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더 높이, 더 빨리의 구호를 추켜들고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지금처럼 충직하고 완벽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것, 만약 물리적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병기들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억제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용진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운산메기공장 준공식 진행

운산메기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였다.

종합지령실, 야외비육못, 자연먹이서식장 등 전반적인 공정들이 그쯘히 갖추어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정보화가 실현된 메기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였다.

준공사를 문경덕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신선하고 맛좋은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시기 위해 각 도들에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일떠세우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전국가구 및 건축장식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19 개막

전국가구 및 건축장식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19가 개막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교육기관, 각 도인민위원회 산하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50여개 단위들에서 내놓은 30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과 제품들이 전시되였다.

가구제작 및 건축장식기술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릴 목적으로 열리는 전람회는 가구, 건축장식, 가구형성안부문으로 나뉘여 제품전시와 새 기술, 새 제품교류형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이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나라

오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공화국은 력사의 모진 광풍과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굴함이 없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공화국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그것은 우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사상의 강국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상리론의 과학성, 혁명성, 현실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서 장구한 투쟁의 전 로정에서 그 진리성과 우월성,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을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는 여기에 공화국의 공고성과 생명력이 있다.

승리만을 떨쳐온 장구한 실천투쟁속에서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공화국이 불패의 사회주의나라로 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불패성은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력이며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단결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수 없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있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이고 우월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인 일심단결의 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있다.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혼연일체의 대오로 더욱 굳게 결합되고있다.

물리적인 힘이나 실무적인 결합으로 유지되는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령도자와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뜻, 뜨거운 정과 의리로 맺어진 일심단결된 강국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다.

공화국이 불패의 사회주의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인민의 나라이기때문이다.

공화국은 국가와 사회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이다. 하기에 인민들은 공화국을 자기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여기고 국가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의 품속에서 공화국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조선로동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활동원칙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이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야말로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떨어져 살수 없는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주체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솔향기 풍기는 거리

◆우리 겨레는 대동강문화의 발생초기부터 소나무와 뿌리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우리 나라의 첫 국가인 고조선과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지방은 예로부터 소나무가 특별히 많은 고장들이였다. 력대로 소나무는 민족의 아들딸들의 대바른 성장과 나라의 기강과 정기를 상징하는 더없이 신성한 나무로 되여왔다. ◆공화국에서는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되여있다. 어딜 가나 흔히 볼수 있는것이 소나무이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모란봉에도 소나무가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있고 아이들이 메고다니는 책가방에도 《소나무》상표가 새겨져있다. 소나무를 주제로 하여 열리는 미술작품전시회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특색있는 전시회로 되고있다. 태권도선수들도 소나무와 더불어 민족의 억센 힘과 기개를 떨쳐간다. 그들이 입는 흰색복장의 뒤면에는 조선글자와 영어글자로 《태권도》라고 새겨져있는데 그 모양은 사철 푸른 소나무를 형상한것이다. ◆최근 려명거리, 만수대거리, 창전거리를 비롯한 평양의 곳곳마다 소나무로 이채롭게 원림록화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력사유적인 보통문의 주변에도 높이가 7~8m이상 되는 키큰소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거리의 풍치를 돋구고 민족의 정취를 한껏 뿌려주고있다. 소나무의 억센 기상이 살아 숨쉬는 평양의 거리거리이다. 그 풍경은 그대로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이 땅,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함이 없이 강국의 미래에로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공화국의 굳세고 강한 모습을 방불히 떠올려준다.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여

선군절을 맞는 공화국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번영을 위해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지금으로부터 59년전 주체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혁명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위업의 드팀없는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총대가 약하면 망국민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깊이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멀고 험한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1990년대는 공화국에 있어서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종말》을 떠들며 총공격의 화살을 조선에 집중하였으며 공화국인민들은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자신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회고하시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길이였다.

전선에서 전선에로 종횡무진하시며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의지가 비낀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주시고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령장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어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되고 조국방선은 철벽으로 더욱 다져지게 되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어진 어버이장군님의 선군길우에는 눈물과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어느해인가 온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고 달리신 주행거리가 1 000여리에 달하였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전선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했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슬아슬한 칼벼랑길과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서슴없이 헤치시며 찾고 또 찾으신 철령과 오성산,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 그 나날에 태여난 쪽잠과 줴기밥, 야전리발, 단벌솜옷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한 수많은 일화들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를 전하여주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이 있었기에 공화국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공화국인민들은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계속 떨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강번영의 미래를 앞당겨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였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와 성강, 강선과 락원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게 하시였다.

그 나날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과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번뜻하게 정리되게 되였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와 온 나라가 흥성이고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도 지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지켜주고 강화발전시켜주신 공화국은 또 한분의 탁월한 령장이시며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그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문무를 겸비하시고 높은 령도적수완과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인민군대가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지략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자기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도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과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 새 무기 시험사격들을 련이어 지도하시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철벽으로 보위하고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강력한 국방력이 믿음직하게 보장되여야 한다고,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목표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관심속에 이룩되고있는 첨단무기개발성과는 공화국의 주체적국방공업발전사에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이며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솟아나고 창조와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공화국의 국력을 최대로 강화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뛰여난 외교지략과 무비의 담력, 넓은 포용력, 결단력으로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고 계신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공화국의 지위에서는 너무도 커다란 극적변화가 일어났다.

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평하였다.

《령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보통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경이적인 사변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공화국이 누리는 행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애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때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라는것이 선군절을 맞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는 신심이고 락관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위대한 선군의 증견자로 솟아 빛나는 오성산

◎ 군력강화의 길에서 ◎

민족자주위업은 대를 이어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노래가 조선혁명에 관통되여있는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사상, 계속혁명사상의 시원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시련이 막아서고 힘이 드실 때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생각하시는 그이께서는 이튿날에도 일군들에게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주시며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노래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되새겨보면서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군 한다고 하시였다.

국력의 높이, 존엄의 높이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군사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있는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한데 대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군수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군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한 성과로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어 과학기술적으로 론박할 여지가 없는 우리 타격수단들의 첨단수준의 높이는 곧 우리 국력의 높이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 당중앙의 군사전략전술사상을 실현할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들과 사소한 간격도 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겸허한 품성을 지니신 인민적령도자의 귀감이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과 사소한 간격도 없이 지내시면서 자신에 대한 특전과 특혜도 불허하신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극장을 돌아보시다가 중앙관람석이 있는것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도 앞으로 이 극장에 공연을 보러 올 때에는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며 중앙관람석을 없애도록 하시였다.

인민극장이 완공된 후 개관공연을 보시기 위하여 극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1 500석중의 한 좌석인 4렬 28번 자리에 앉으시여 관람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과 허물없이 지내시며 격식과 틀을 모르신다.

어느해 식수절날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미 파놓은 구뎅이를 보시며 이런것은 형식주의라고, 자신께서는 식수절에 나무를 심었다는 형식을 차리려는것이 아니라고 하시였다. 이른봄철이라 땅이 얼어 파기 힘들었는데 그이께서는 식수는 이렇게 자기가 구뎅이를 직접 파고 심어야 식수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언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시였다.

물고기대풍을 이룩한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던 날에는 물고기절임창고에 들리시여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는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절인 물고기들이 가득 쌓여있고 습기와 소금기가 밴 절임탕크의 나지막한 턱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일군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였다.

유희기구의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민들이 마음놓고 리용하게 하자면 일군들이 먼저 타보아야 한다시며 오르신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관성비행차에도, 최전연의 섬초소를 찾아 오르시였던 27H목선에도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신 그이의 인민적풍모가 그대로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꼭같은 옷을 입으시고 수수하고 검박하게 지내신다.

국제사회계에 《인민복》으로 통용된 닫긴깃양복차림의 모습이 공화국의 인민들뿐아니라 세인에게 친숙해진 그이의 차림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을 돌아보실 때에 있은 일이다. 그이께서는 양말매대에 이르시여 《철쭉》표양말 한짝을 드시더니 자신께서 신으신 양말과 대비해보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 신으신 양말도 《철쭉》표양말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신은 양말이 여기에 있는것과 꼭 같다고 놀라는데 자신께서도 평양양말공장에서 만든 양말을 신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적인 풍모를 전하는 일화들은 무수하다.

로씨야의 어느 한 작가는 소박성이 없는 곳에 위대성이 없다고 하였다. 가장 소박한것에 가장 위대한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서 그들과 꼭같이 소박하고 검박하게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통하여서도 그이의 위대함을 알수 있다.

박호남

절세위인들의 강국념원을 꽃피워가시며

공화국에서 창조와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현실로 펼쳐지는 희망찬 시대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밝은 미래는 강한 자위의 힘에 달려있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실천이였으며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강력한 군력에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성,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의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서린 화선들, 국방공업부문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군력강화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각종 사격경기들도 지도하시며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각 군종, 병종들의 전투훈련도 조직지도하시며 훈련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하신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인민군대는 최정예강군으로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철의 담력과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시련과 난관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시여 공화국을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이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성의 도처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지만 공화국인민들이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매진하고있는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받아안은 크나큰 행운이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기치높이 국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으시였다. 세계를 굽어보시며 과학기술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온 나라에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강원도정신, 만리마속도와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가 나래치고 수많은 창조적재부들이 마련되였다.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차넘치고 교육과 체육, 보건, 국토관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삼지연군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성과들은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을 사회주의강국의 제일징표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겨레를 품어안는 열렬한 민족애와 대해같은 포용력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오시였다.

자주외교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전례없이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세계무대에서 자주권과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사상최대의 제재압박공세속에서도 몇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건설에서 이룩된 미증유의 거대한 성과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공화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놀라운 국가건설기적이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박영길

청년들의 모습에 비낀 공화국의 미래

8월 28일은 공화국에서 청년절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청년들도 이루 헤아릴수 없지만 공화국의 청년들처럼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해가는 긍지높은 청년들은 없다.

세상을 둘러보면 청년들이 응당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력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발전에서 믿음직한 역군이 되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청년문제,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한데 대하여 우리 당의 긍지이고 커다란 승리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에서는 청년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속에 청년들이 어느 시기에나 나라의 발전을 주도하고 선도해나가는 주력군, 기둥으로 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새세대청년들을 묶어세우시여 짓밟힌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위조직을 내오시였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그리고 항일대전과 해방후 새 조선건설을 비롯한 국가건설과 활동의 전로정에서 언제나 청년들을 선봉에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책을 그대로 이으시여 청년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들이 민족자주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시대적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에게는 천만금의 재부가 있는것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대오를 가지고있는것이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높은 이름으로 청년들을 내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더없는 재부로, 금싸래기로 여기시였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에서 큰 역할을 한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자신의 동상을 모실것을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잘 세워주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며 요즘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어디에 세우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주체101(2012)년 청년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청년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으며 전국각지의 청년대표들로 청년절경축대회를 성대히 가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진다고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공화국의 청년들은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청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최첨단돌파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교정들과 과학연구기지들 그리고 공장과 농어촌, 발전소 등 사회주의건설장들 그 어디서나 커다란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청년들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다.

번화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원진출하여 사회주의대지에 청춘의 땀을 바쳐가는 남녀청년들, 군복을 입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초음속전투기비행사가 된 용감한 처녀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와 같은 미덕의 주인공들, 외진 섬마을과 산골마을의 학교, 분교들에 자원진출해간 대학졸업생들…

청년들을 시대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과 은혜로운 사랑에 애국충정으로 보답하는 청춘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주체105(2016)년 4월 어느날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건설자들의 글작품집과 소묘작품집, 사진화첩, 직관사진화첩을 보아주시였다.

자랑찬 대건설전투를 담은 작품들과 사진들을 일일이 보시던 그이께서는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는 직관사진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북방의 강추위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는 신념과 배짱으로 발전소언제를 일떠세웠다는 일군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자신께서는 그 지구를 돌리겠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돌리겠다!

령도자의 믿음이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청년들의 담대한 기상과 그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크나큰 기대가 담긴 뜻깊은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애국의 힘과 열정이 되여 청년들은 령도자가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며 창조와 건설의 모든 곳에서 청춘의 위훈을 세우며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힘있고 활력있는 청년대군이 있기에 공화국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공예 《달리는 마차》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중국국제문화전파중심 부주석이 올린 선물이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는 《만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를 칭송하여 이 선물을 삼가 드립니다. 나는 중국과 조선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여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공헌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이 더욱 강성번영하며 조중친선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일찍부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1972년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분렬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뜻깊은 사변이였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도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삼천리강토는 통일의 열망으로 끓어번지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자마자 《종이장 한장에다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 《미군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면서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하고있었다. 또한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매달리였다.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고수하며 통일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기 위해 주체61(1972)년 7월 14일 력사적인 로작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밝히시고 공동성명자체를 뒤집어엎으려는 분렬주의자들의 속심을 까밝히시였으며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당성과 그 관철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로작에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근원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있다.

로작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두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주체61(1972)년 7월 19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판문점으로 말하면 하나의 분리선을 경계로 하여 민족의 분렬상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분렬의 상징이다. 겉으로는 고요한 정적이 깃든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준엄한 대결의 순간순간이 꿈틀거리고있어 언제 불과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맞부딪칠지 모를 경계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의 한초한초가 흐르는 곳이 바로 판문점이였다.

7.4공동성명은 발표되였지만 내외분렬주의세력은 《대화있는 대결》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판문점구역과 비무장지대에 매일과 같이 수많은 전투인원들과 중무기,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각로대에까지 나가시여 북남적십자예비회담과 관련하여 몰려든 남측인원들과 여기저기 삼엄하게 늘어선 미군으로 하여 붐비는 회의장구역을 굽어보시였다.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과 강토가 두동강이 나고 겨레에게 긴긴 세월 분렬의 고통과 리별의 설음을 강요하고있는 원한서린 현장을 둘러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였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이렇듯 판문점에 통일령도의 숭고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이로부터 두해후의 7월 어느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을 또다시 찾으시여 점도록 남녘땅을 굽어보시며 천만근의 무게가 실린 어조로 조국을 빨리 통일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6(1977)년 7월초 어느날에도 개성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판문점에 들리지 않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일군들을 판문점으로 이끄시였다. 판문점에 도착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판문각로대로 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통일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군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을 떠나시기에 앞서 저으기 흥분된 심정을 누르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우리모두 힘을 합치고 분발하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추억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령도에 의해 후날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태여날수 있었다.

고영식

툴이 아닌 영원한 하나

주체68(1979)년 10월 어느날 밤이였다.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국제무대에서 론의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통일전망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시였다.

일군은 우리 나라의 통일전망과 관련한 세계여론을 종합해놓고보면 조선의 통일이 우리 세대에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관점들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일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왜 생겨난것 같은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일군은 자기나름대로 생각하고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히 말씀드렸다.

《조국통일을 위해 피도 많이 흘리고 시간과 정력도 많이 소모했지만 통일의 앞길에는 여전히 암초만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통일이 먼 앞날의 일이라고 비관하는 현상도 생기고 통일이 우리 세대에는 이룩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실망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분렬에 대하여 그것을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치하고있는 힘의 균형상태의 반영으로 보면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견해까지 대두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전도를 비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된 주객관적요인들을 분석하시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비관하는 론조는 결국 하나의 조선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속에서 나오는 사상적경향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결국 하나의 조선인가 아니면 두개의 조선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두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격한 심정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다.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나는 어린시절 38°선이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분렬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했지 결코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후대에 통일위업을 미루려는 그릇된 관점이라고, 통일위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온 민족이 애국의 마음으로 단합하면 능히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짓부시고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은 그 일군뿐아니라 온 겨레의 가슴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 굳건한 통일의지를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평화대행진 (2013년 7월 24일)

통일애국의 려정을 더듬어 (4)

과도적인 북남련방제방안의 제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였다.

4.19인민봉기로 독재《정권》을 거꾸러뜨린 남조선인민들은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고 조국통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게 되였다. 인민들의 투쟁기세와 통일기운에 편승하여 출현한 혁신정당, 사회단체들도 평화통일의 구호를 들고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앞에 나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화국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북남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조국통일립장과 의지를 재삼 밝히시고 만일 남조선당국이 아직은 북남총선거에 응할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북남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은 북남사이에 격폐된 상태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과도적조치로서 련방기구를 조직하여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긴급한 당면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끊어진 동족간의 뉴대를 다시 잇고 북과 남의 공동발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종국적으로는 북남총선거에 의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었다.

새로운 련방제안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공화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임명하는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가 조선의 북과 남에 존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남조선《정부》 그리고 두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북과 남을 련결시키는 련방기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것이였다.

이 련방기구의 임무는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문제들을 론의하고 그 발전을 조절하며 나라의 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대외분야에서도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고 특히 북남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전민족적단결을 공고히 하는것이였다.

공화국이 과도적대책으로 제시한 북남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은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는 인공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북남련방제안까지도 당장 받아들일수 없다면 북남의 실업계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북남사이에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건설에서 서로 협조하고 원조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이와 함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군을 물러가게 하고 북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것을 제의하시였다. 그리고 이 모든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북남대표들이 모여앉아 협상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이렇듯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제시된 북남련방제를 비롯한 공화국의 제안들은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와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성취하기 위한 현실성있는 대책이였으며 온 민족의 일치한 지향과 공동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공명정대한 방안이였다.

1960년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는 북남련방제실시를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국회》 및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북남조선의 경제, 문화협조와 교류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의 민족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방면적인 제안들과 특히 남조선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들과 대책을 강구하였다.

북남련방제안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키였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 자주통일의 기운과 북남협상의 열망을 급격히 높여주었다.

남조선신문 《국제신보》 1960년 8월 16일부에 실린 사설은 《해방 15주년을 맞이하는 전야 평양극장에서 제안한 김일성수상의 통일방안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정치지도자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될것 같다.》, 《우리 민족의 생활에 관한 문제, 국토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세에 의존하고 타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만 모색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들끼리 흉금을 털어놓고 론의해보자는 의욕이 풍겨있기때문에 민족적인 접근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화국의 새 통일방안에 접한 남조선의 혁신정당들도 민족자주적인 통일정책에로의 방향전환을 하게 되였다.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립각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조속한 실현》, 《자립경제의 확립》 등을 기본로선으로 내세우고 《민족자결원칙에 립각하여 민주통일국가의 완성》, 미국과의 《군사조약반대》, 《공산당불법화조건의 철폐》, 《남북간의 직접협상과 교류》의 실현 등을 주장해나섰다. 사회대중당은 련공통일에로의 지향과 북남련방제의 실시,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의 구원과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북남경제교류, 북남군대의 각각 10만이하의 축소 등 자기의 통일방안에 공화국의 획기적인 제안들을 수용하였다.

남조선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도 공화국의 제안들을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의 여러 각계층 인사들도 북남간에 서로 만나 협상하는것을 두려워하는것은 통일을 반대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북남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통일협의체》를 구성할것을 주장하여나섰다.

이렇듯 과도적인 북남련방제통일방안은 온 겨레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이것을 계기로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는 더욱 고조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영진

민심의 지지를 받으려면

요즘 이남당국의 《국정》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다고 한다.

이남당국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강행과 첨단무기반입에 끈질기게 매여달리는것으로 하여 지난해까지만 해도 좋게 나아가던 북남관계가 교착국면에 처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남민중의 당국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있다. 더우기는 이남당국이 사사건건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북과 남이 합의발표한 력사적인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남민중의 실망의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이남의 민심이 이처럼 당국에 등을 돌려대고 《국정》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이남당국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내외반통일세력에게 동조하고있는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시기만 돌이켜보아도 그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지난 2008년에 집권한 리명박《정권》은 그 무슨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저들의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면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나가던 북남관계를 하루아침에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다.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5.24조치》라는것을 조작해서는 북남사이에 민간교류마저 가로막아나섰으며 외세와 야합한 합동군사연습을 이남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가뜩이나 고달픈 이남민중의 삶은 전쟁불안과 공포때문에 더욱 악화되였다. 하기에 이남민중은 리명박의 집권전기간 역도의 광란적인 대결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으며 리명박《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리였었다.

리명박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보수《정권》시기에는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여 여기에 진출하였던 백수십여개에 달하는 남조선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으며 수많은 남측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뿐만아니라 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원인모를 사건을 구실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도 감행했었다.

하기에 이남민중은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민족의 보금자리인 삼천리강토를 핵전쟁의 무서운 참화속에 몰아넣으려 한 박근혜보수《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추운 겨울날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거리로 떨쳐나왔다. 하여 초불민심의 거세찬 투쟁에 의해 동족대결광인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리명박, 박근혜역도는 지금 집권기간 저지른 용서 못할 죄악으로 하여 피고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신세에 처해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은 천벌을 면할수 없으며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어도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이남의 당국자들도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게 행동하고있으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강행과 최신공격형무기반입같은 대결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이남당국이 온 겨레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지금의 《국정》위기는 언제가도 가셔지지 못할것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현 이남당국이 이제라도 좌고우면하거나 방해세력들과 타협함이 없이 크고작은 걸림돌들을 대담하게 극복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 때만이 잃어버린 민심의 지지를 회복할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나 한사람의 충고만이 아닌 온 겨레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재중동포 김민수

주견과 주대가 없으면 무시와 랭대만을 받게 된다

지금 남조선이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무시와 랭대, 구박을 당하는것이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과거사문제로 시작된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갈등이 경제분쟁으로 번진데다가 일본이 현 남조선《정권붕괴》시도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어 남조선과 일본관계는 사상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이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던 미국은 최악의 상태에 빠진 남조선과 일본간의 대립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하고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국들은 공동으로 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의 반항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에 동조해나서려는 남조선당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 《북남관계가 악화된 마당에 주변나라들과의 대립까지 심화되면서 현 정부가 그야말로 〈오면초가의 신세〉로 몰리웠다.》, 《렬강들의 먹이감으로 전락하였던 조선봉건왕조 말기를 련상케 한다.》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겠는가.

하다면 이 모든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속담에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남조선이 처한 신세는 결코 지정학적숙명이 아니다.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동맹》과 《공조》의 보자기로 포장된 주종관계, 추종관계에 얽매여있기때문이다.

남조선이 자기 주견과 주대를 가지고 민심에 의거하여 민족의 근본요구와 남조선자체의 리익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했다면 큰 나라들도 지금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것이다.

주견과 주대가 없는 《동맹》과 《공조》의 그늘밑에서는 절대로 자기의 리익을 찾을수 없다.

제 대접 제가 받는다고 주견과 주대가 없는 구차스러운 행태로 얻을것은 무시와 랭대, 구박뿐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남조선보수패당의 추악한 친일매국적정체를 폭로한다

조 국 통 일 연 구 원 고 발 장

지금 남조선에서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과거죄악회피책동과 횡포무도한 경제침략행위를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온 남녘땅을 휩쓰는 반일투쟁기세에 역행하여 섬나라족속들과의 《타협》과 《굴종》을 극구 선동하면서 저들의 친일매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조선민족의 넋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반역의 무리, 섬나라오랑캐들의 케케묵은 주구들인 남조선보수패당을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천하역적무리들의 추악한 매국배족적정체와 만고죄악을 만천하에 발가놓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매국노들

제2차 세계대전후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파쑈전범자들과 함께 민족반역자들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지난날 일제의 앞잡이가 되여 극악한 만행을 저지른 친일파들이 숙청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쳐들고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원조들, 친일매국으로 악명을 떨친 특급반역자들이다.

8.15해방후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신식민지정책을 실현할 특등주구로 지목된 리승만역도는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청산될 위기에 처해있던 친일파들의 숨통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괴뢰만주국군대에서 복무한 원용덕, 일본헌병대 소좌로 복무한 정일권, 일제 《간도특설대》출신인 백선엽, 일본헌병대에 복무하면서 항일세력을 탄압했던 김창룡, 일제경찰출신의 로덕술 등 친일매국노들이 군부와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진출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리승만역적패당에 의해 해방후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주장한 김구, 려운형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인민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친일잔재숙청을 위해 조직되였던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해산되였다.

리승만역도는 일제에게 빌붙어 부귀영달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역적죄를 지은 친일매국노들로 《자유한국당》의 시조인 《자유당》을 조작하였다.

《자유당》의 주요당직자들, 핵심당원들은 모두 일제강점시기 시의원, 검사, 판사, 경찰서장, 군수를 해먹은 악질친일파들이였다.

리승만도당은 미국과 함께 도발한 1950년대 조선전쟁에 일제침략군의 잔여분자들을 끌어들이는 극악무도한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보수의 대부》로 내세우는 박정희역도 역시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게 복무한 특등매국노였다.

박정희역도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왜왕에게 멸사봉공하겠다는 《충성혈서》와 함께 참군열망을 피력한 편지를 섬나라족속들에게 섬겨바쳐 괴뢰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후 일본륙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특혜》까지 받았다.

박정희가 얼마나 친일매국에 환장하였는가 하는것은 역도가 다까끼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한것도 성차지 않아 오까모도 미노루라는 완전한 일본식이름을 애용한데서 여실히 알수 있다.

하기에 당시 일본륙군사관학교 교장이였던 나구모 쥬이찌는 박정희역도에 대해 《다까끼(박정희)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께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데가 있다.》고 평하였다.

이렇듯 철저한 친일주구였기에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의 《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한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오노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와는 부자사이 같은 관계로서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온것은 무엇보다 즐겁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았다.

박정희역도는 집권후 매국적이고 굴종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덮어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몇푼의 돈에 팔아먹는 희세의 역적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당국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벌려놓은 첫날부터 기고만장하여 《과거에 대한 배상은 없다.》는 날강도적인 요구를 내세웠다.

박정희역도는 옛 상전에게 발라맞추며 《국민의 비난을 받더라도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우리 량국은 과거의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될 력사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떠벌이면서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막후교섭과 비밀흥정놀음까지 벌리였다.

박정희역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였던 친일주구 김종필은 《제2의 리완용이 되더라도 한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망발을 줴치며 《한일회담》의 가장 난문제로 된 대일배상청구권문제를 일본반동들의 요구대로 처리하였다.

박정희역적패당에 의해 일제가 조선강점기간 우리 민족에게 끼친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배상이 아니라 원조의 미명하에 3억US$,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5억US$의 차관을 받는것으로 용인해준 치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였다.

당시 박정희역도의 극악한 친일매국책동을 극구 비호두둔하고 정치적으로 적극 지원한것은 일본륙군사관학교와 일본 아께노륙군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전대장까지 해먹으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을 위해 필사분투했던 김정렬을 비롯한 친일역적들의 집합체, 《자유당》의 후신인 《민주공화당》패거리들이였다.

이처럼 남조선보수패당의 원조들은 모두가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깡그리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외세의 꼭두각시가 되여 더러운 명을 부지한 추악한 친일매국노들이였다.

친일매국원조들의 추악한 반역행위로 하여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한일협정으로 모든 보상이 완료됐다.》고 떠벌이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고있으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남조선에 경제침략의 칼까지 휘두르고있는것이다.

매국반역의 죄악을 덧쌓은 역적무리들

독뿌리에서는 독초가 돋기마련이다.

사대와 반역의 독극물을 받아마시며 권력야욕을 키워왔기에 집권한 첫날부터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고 동족에게는 대결의 칼을 휘두르며 조상들에게 결코 짝지지 않는 매국배족적죄악을 덧쌓아온 추악한 친일역적들이였다.

박정희역도를 본따 총칼로 권력의 자리를 가로챈 전두환역도는 《일본과 한국은 같은 령토》, 《운명공동체》라고 아양을 떨고 《일본의 방위력증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한국군을 보강해주는 결과가 될것》이라고 줴쳐대며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지해나섬으로써 친일매국노로서의 악명을 세상에 떨치였다.

리명박역도 역시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적극 비호한 극악한 친일매국노이다.

리명박역도는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직후 일본정부의 《특사》자격으로 남조선에 날아든 전 일본수상 모리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여있으면 오늘이 불행해질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력할 자세가 되여있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역겹게 놀아댔다.

왜나라것들에게 얼마나 삽살개처럼 놀아댔으면 리명박을 직접 만나본 일본의 고위당국자들이 역도의 친일성에 《정말 놀랐다.》고 하며 혀를 찼겠는가.

바로 이런 친일역적이기에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며 집권 전기간 일본것들과 무려 20여차에 달하는 회담을 벌리면서도 과거사청산문제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같이 시급히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들을 단 한번도 회담탁우에 올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수뇌왕복외교》니, 쌍방《국회》 및 정치인들의 래왕이니 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친일굴종적인 립장과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역도는 2008년 7월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후꾸다가 일본중학교 교육지침서인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기다려달라.》고 애걸하였는가 하면 2010년 4월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것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일본반동들이 정식 발표하였을 때에는 《조용한 외교》를 운운하며 눈감아주었다.

섬나라졸부들에게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와 공조를 구걸하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피해배상문제와 독도강탈책동을 묵인, 비호해준 리명박역도는 일본반동들과 공모하여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호상군수지원협정체결놀음을 벌려놓고 일본《자위대》와의 공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왜나라족속들과의 군사적결탁행위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오죽하면 역도의 친형인 리상득까지도 《리명박은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토설하였겠는가.

특등친일매국노인 애비의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년도 집권기간 극악한 친일매국적죄악으로 악명을 떨쳤다.

역도년은 집권하자마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문가들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올려앉혀 력사외곡책동에 광분하는 일본반동들에게 적극 추종해나섰다.

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역도는 외교부것들에게 독도를 표현할 때 《다께시마》라는 일본식명칭을 함께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쓸개빠진 지령까지 내리였다.

또한 2013년 11월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국무총리》 정홍원으로부터 대법원에 상정된 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재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이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고 고아대며 아래것들을 들볶아 끝끝내 재판을 파탄시켜버렸다.

특히 온 민족의 거센 항의와 완강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말 일본반동들과 굴욕적인 회담을 벌려놓고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전격타결해버리는 극악한 친일매국행위를 저질렀다.

치마두른 이 친일악녀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이니, 《돈독한 신뢰구축》이니 하는 개나발을 불어대면서 일본과 끝끝내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천년숙적들의 재침야욕을 부채질하고 대륙침략의 징검돌들을 놓아주는 천하역적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민족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박근혜역도는 제년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해 《력사의 아픔을 달래는 외교적결실》,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최상의것을 받아낸것》이라고 역겨운 자화자찬까지 늘어놓는 추태를 부리였다.

참으로 전두환,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그 정치적시녀인 보수패당은 권력과 부귀영달을 위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외세에게 팔아먹은 천벌을 받아마땅한 친일매국노들이다.

한시바삐 청산해야 할 토착왜구들

남조선에서 리승만, 박정희도당을 비롯한 친일매국의 원조들, 전두환,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같은 반역의 독버섯들은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지만 그 추악한 바통을 이은 현대판 《을사오적》들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날치고있다.

그것이 바로 남조선의 극우보수패당이다.

이 인간추물들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여 날에날마다 왜나라의 날강도숙적들을 비호두둔하는 망동과 망언만을 일삼는것으로 하여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몇달전 남조선함선에 대한 일본해상순찰기의 위협비행사건이 발생하자 《자한당》의 원내대표 라경원과 김무성, 정진석과 보수정객들은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다.》, 《한일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적과도 동맹하는것이 외교이다.》고 지껄여대면서 《국익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얼빠진 수작질을 해댔다.

역적패당은 박근혜보수《정권》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하였던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이 결정되였을 때에도 《심중치 못한 결정이다.》, 《지나친 과거지향적자세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는 분리해야 한다.》는 따위의 해괴한 망언을 줴쳐대며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나서는 일본반동들의 날강도적궤변을 비호두둔해나섰다.

《자한당》 등 보수패당의 친일사대매국적행태는 최근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을 걸고 감행되는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극도에 이르고있다.

황교안, 라경원, 홍준표는 매일같이 언론에 나서서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질 싸움에 끌려들어가는것은 재앙이다.》, 《지금은 친일을 할 때이다.》고 고아대면서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궐기한 광범한 인민들의 투쟁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아베일당과의 타협과 굴종을 선동해대고있다.

지어 원내대표 라경원년을 비롯한 역적당패거리들은 말끝마다 《우리 일본정부》, 《대일민국》이라는 망발을 버젓이 내뱉는가 하면 남조선 각계의 정의로운 반일투쟁을 《신쇄국주의》, 《감정적인 반일선동》, 《무모한 자살적행동》으로 모독함으로써 뼈속까지 친일인 저들의 매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자한당》패거리들의 흉악한 친일매국망동에 극우보수정객으로 둔갑한 리언주,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바른미래당》소속 《국회》의원 류승민, 극우보수론객 지만원 등 어중이떠중이들까지 가세하여 《일본과 등을 지면 한일동맹이 끊어지고 안보가 위험해진다.》, 《아베수상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일제강제징용은 조선인들에게 좋은 일》 등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반역적인 망발들을 마구 내뱉으며 천년숙적들에게 아부굴종할것을 력설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아베일당의 파렴치한 경제침략책동을 비호하고 편승하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에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한시바삐 매장해버려야 할 친일매국집단, 토착왜구무리이라고 단죄규탄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

천하에 없는 친일매국역적무리, 민족반역패당인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 치욕과 굴욕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천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청산은 고사하고 섬나라족속들에게 다시금 무참히 짓밟히는 수난의 운명을 되풀이할수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게 팔아 잔명을 부지해온 보수패당을 더이상 용서치 말고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8(2019)년 8월 22일
평 양

파쑈암흑시대를 되살려보려는 범죄적망동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다 꿰진 《보수대통합》의 북통을 두드리고있다.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하여 역적당의 우두머리들이 련일 현 《정부》를 반대하는 우파들이 뭉칠 때가 되였다, 류승민은 함께 가야 한다며 《보수대통합》놀음에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친박근혜계와 경상도지역출신들이 차지하고있던 비서실장, 당대변인 등 일부 당직들에 류승민파와 가까운 비박근혜파와 수도권, 충청도지역출신들을 새로 앉히는 놀음까지 벌리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보려 하고있다.

특히 《자한당》원내대표 라경원은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당은 미래가 없다, 언제까지 탄핵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전 《바른미래당》공동대표였던 류승민에게 추파를 던지고있다. 지어는 안철수, 류승민파가 통합대상으로 점찍고있는 보수단체들이 벌려놓고있는 《보수통합을 위한 대토론회》에까지 참가하여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력설하면서 《재야보수끌어안기》에 매달리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공화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 《태극기부대》가 벌려놓은 반《정부》집회에도 참가하는것을 검토하는 등 《보수대통합》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고있다.

《자한당》이 《바른미래당》을 끌어당기려고 이처럼 체면도, 수치도 모르고 헤덤비는것은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간상배들의 정략적인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정당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을 위해서는 개와 고양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움질하는것이 두 당사이의 관계이다. 더우기 《바른미래당》의 전 공동대표였던 류승민은 박근혜의 탄핵에 동조한것으로 하여 《자한당》에서 《배신자》로 치부하는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이 류승민이까지 끌어들이겠다고 날치는것을 보면 역적당이 권력야욕실현에 얼마나 환장이 되여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는 역적당의 추태속에는 온 겨레의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는 친일매국책동과 동족대결광란, 더러운 부정추문으로 하여 직면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더러운 흉심이 깃들어있다.

과거에 저지른 천추만대에 용납 못할 대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 오히려 경제보복조치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망동에 온 남조선땅이 반일투쟁의 기운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 일본》, 《우리 일본정부》,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할 때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줴치며 친일매국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자한당》을 두고 남조선민심은 《일본자민당의 남조선지부》로 락인찍고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다.

온 겨레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있을 때 판문점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철폐를 공공연히 떠들고 일신의 안락과 부귀를 위해 더러운 부정부패행위들을 일삼고있는것이 바로 《자한당》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역적당은 민심의 버림속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다. 우파결집으로 살구멍을 찾고 초불민심을 거역하여 파쑈암흑시대를 되살려보려는것이 바로 《자한당》이다.

《정권》찬탈과 복수를 꿈꾸는 《자한당》과 같은 적폐세력들의 부활을 수수방관한다면 남조선에 제2의 박근혜《정권》이 생겨나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또다시 몰아올것이며 남조선경제와 민생을 지금보다 더한 도탄에 빠뜨릴것이다.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제명을 다 산 력사의 오물, 산송장들의 《보수대통합》놀음이 민심의 거세찬 항거와 시대의 격류앞에 풍지박산나게 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만평 방 패 막 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8.15를 맞으며 남조선도처에서 대규모집회와 시위 진행 —

8.15를 계기로 남조선 각지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보수적폐를 청산하며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 드높은 기개가 뚜렷이 과시되였다.

지난 7월 일본의 비렬한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반일투쟁은 8.15를 맞으며 더욱 고조되여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전,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아베패당과 《자한당》패들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 문화행사들이 다양하게 벌어졌다.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아베규탄초불집회에는 750여개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로동계, 농민계, 청년학생,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투쟁단체들이 조국해방 74돐이 되는 8월 15일에 전지역에서 터져나오는 반일의 함성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떨쳐나왔다.

특히 8월 15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청소년들과 가정주부, 고령인 일제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우리가 력사의 산증인이다.》, 《일본이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행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하면서 아베규탄초불집회와 시위에 적극 참가하였다.

각계층 투쟁단체들은 《경제침략 규탄한다!》, 《식민지지배 사죄하라!》, 《군국주의 분쇄하자!》, 《친일적폐 청산하자!》 등 반아베, 친일적폐청산투쟁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는것과 함께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반미투쟁과 평화통일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각계층 투쟁단체들은 미국과 일본의 방해와 간섭, 반통일수구세력들의 준동으로 조선반도가 또다시 화약내나는 과거로 돌아갈수 있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있다, 미국의 평화위협책동과 일본의 친인공노할 경제침략, 친일친미보수세력들의 분별없는 행태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보수패당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투쟁단체들과 시민들은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생명이며 원칙중의 원칙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주적통일은 결코 있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있다.》, 《하루빨리 종속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들이대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멸행위

최근 남조선의 집권여당이 공화국을 주제넘게 걸고들며 내부의 《안보》불안을 눅잦혀보려고 분별없이 놀아대고있다.

《북의 군사행동과 거친 언사는 한반도평화에 역행한다.》, 《북의 미싸일공격을 고도별로 막는 요격체계를 갖추고있다.》고 떠든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것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에로 떠미는 자멸행위이다.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이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라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합동군사연습이 조미, 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공화국이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경고하였었다.

국제사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은 북남수뇌상봉과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이다,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으로 외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불장난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끝끝내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공화국으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이다.

이 시각도 남조선당국은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공화국을 겨눈 《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떠들어대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위선과 이중적인 행태를 다시금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에 대한 군사적압박에 혈안인 남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공화국의 자위적무력건설사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집권여당이 지금처럼 계속 놀아댄다면 그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종당에는 자멸하는 길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검푸른 바다에 사무친 민족의 절규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더욱더 높이 쌓이는것이 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무친 원한이다.

원한은 저 멀리 검푸른 망망한 바다에도 사무쳐있다.

지금으로부터 74년전인 1945년 8월 24일 일본은 《우끼시마마루》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악귀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혹가이도, 아오모리지방에 끌려갔던 수천명의 조선인징용자들과 일부 가족들은 일본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를 타고 오미나또군항을 떠나 고향과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부산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가슴속에 차고넘친것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하루한시라도 빨리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절절한 마음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왜놈의 억압에서 해방된 제 땅에서 부모처자들과 단란하고 자유롭게 살아보자던 꿈마저 실현할수 없었다.

악착스러운 일본의 살인귀들은 배를 폭파시켜 거기에 타고있던 조선사람들을 거의 모두 살해하였던것이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당시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인학살계획에 따라 조직되고 집행된 집단학살사건이다.

오미나또군항을 떠나 부산으로 간다던 《우끼시마마루》가 마이즈루앞바다로 항로를 바꾼 후 폭침되기까지의 전과정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 지금까지 조사발굴된 자료들이 이 사건의 범죄적내막과 본질을 폭로해주고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은 《우끼시마마루》가 《기뢰에 의해 폭침》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과학성과 현실성, 객관성이 결여된 완전히 허위와 날조에 불과한것이다.

폭침당일인 8월 24일로 말하면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가는 항로의 기뢰해제가 끝난 시점이였고 실지 이날 많은 배들이 이 항로를 따라 항행하였다.

하지만 사고가 난 배는 오직 《우끼시마마루》 한척뿐이였다.

더우기 생존자들은 기뢰에 의한 폭발시 반드시 있어야 할 물기둥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사실들은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 사전에 일제가 면밀히 계획하고 실행한 자작극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배에 싣고나가 폭파시켜 집단수장한 《우끼시마마루》사건은 조선을 강점하고 류례없이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운 극악무도한 일본만이 저지를수 있는 특대형범죄행위였다.

일본은 마땅히 지난 시기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저들의 천추에 용납 못할 과거죄악에 대해 꼬물만 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범죄적인 책동에 혈안이 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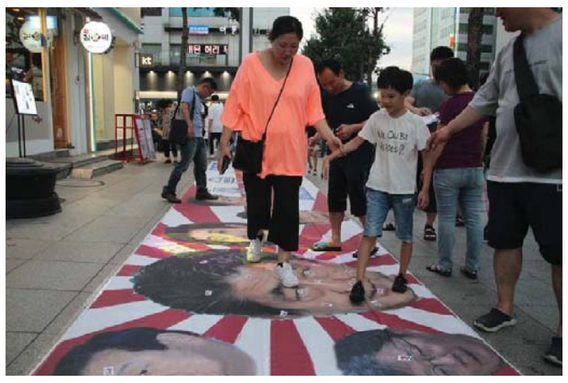
일본당국이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놓고 《국제법위반》을 운운하며 남조선에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의 칼을 마구 휘둘러대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제보복조치로 남조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를 구실로 삼아 일본사회를 더욱 우경화하면서 국내분위기를 헌법개악과 군국주의부활에 유리하게 끌고가자는것이 일본당국이 노리는 목적이다.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는 일본의 파렴치한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민족적분노와 증오심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또다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조현주



《자한당》의 친일매국의 행적 (1)

《유신》독재자가 빚어낸 치욕의 《한일협정》

외세에 대한 아부굴종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자들의 더러운 생존방식이다. 외세의존에 환장한자들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기마련이다.

남조선에 대한 횡포무도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과 한속통이 되여 추악한 망동을 일삼는 《자한당》패거리들의 망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일본의 오만방자한 경제보복조치에 반기를 들 대신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드는 《자한당》의 친일매국행위에서 지난 세기초 일제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망령을 보고있다.

《자한당》의 망동은 력대로 섬오랑캐들을 하내비로 섬기며 친일로 목숨을 연명해온 뿌리깊은 근성의 발로이다.

본지는 《자한당》의 뿌리깊은 친일매국행위를 이번호부터 파헤치는 련재기사를 낸다.

을사국치의 해로부터 60년이 되던 1965년 6월 22일 일본의 도꾜에서는 강도적이고 매국적인 남조선일본《협정》이 정식 조인되는 놀음이 벌어졌다.

이날 일본에서 매국문건에 도장이 찍혔다는 소식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리던 남조선집권자인 박정희는 《협정》이 조인되였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너무도 좋아서 당시 외무부장관이였던 리동원에게 즉시 축전까지 날려보내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그러면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배격받는 남조선일본《협정》은 과연 어떻게 꾸며진것인가.

1951년 10월 20일 도꾜에서는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범죄적인 《한일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벌어진 《한일회담》은 1961년 5월에 박정희가 감행한 군사정변으로 그것이 중단되기까지의 10년동안에 5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별로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골머리를 앓고있던 미국은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자 그를 계기로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빨리 결속짓도록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상전의 이러한 속심을 재빨리 간파한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감행한지 두달밖에 안되였던 1961년 7월에 벌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한 상태를 계속해온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한일회담을 년내에 일괄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떠벌이고나서 그 실현에 발벗고나섰다.

그리하여 중단되였던 매국흥정판인 《한일회담》은 1961년 10월 20일에 다시 열리게 되였다.

당시 일본은 친일주구인 박정희를 몇푼의 돈으로 더 단단히 틀어쥐고 다른 현안문제들도 저들의 요구대로 처리함으로써 남조선일본《협정》을 기어이 성사시키려 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경제사절단과 일본독점재벌들은 박정희에게 저들의 음흉한 기도가 깔린 거액의 돈을 찔러주군 하였다.

박정희가 민정이양을 전후하여 일본상전에게서 받아먹은 정치자금은 2 000만US$를 넘었다.

그후 미일상전의 적극적인 뒤받침으로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감투를 따낸 박정희는 《제3공화국의 운명을 걸고라도 한일회담을 추진시키겠다.》고 하면서 상전의 지시에 따라 1964년 《3월결속》, 《4월조인》, 《5월비준》이라는 일정까지 꾸미고 굴욕적인 협상에 더욱 악을 쓰며 매달렸다.

하지만 박정희의 이 매국일정은 분노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3.24, 6.3투쟁에 의해 실현될수 없었다.

바빠맞은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내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최루탄과 총칼로 마구 탄압하는 한편 《한일회담고지점령내각》이라고 불리운 《정일권내각》을 꾸며내고 매국《협정》체결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결국 14년간이나 끌어오던 침략과 매국의 흥정판인 《한일회담》은 마침내 일본상전의 강도적인 요구가 관철됨으로써 1965년 2월에는 서울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이 가조인되고 그해 6월에는 일본에서 남조선일본《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끝을 맺게 되였다.

매국적인 《협정》을 통해 박정희《정권》은 일본에게서 응당 받아내야 할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 한마디 똑똑히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입힌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3억US$의 《무상공여》로 어물쩍 처리하였으며 일본과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타결하기로 하는 등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죄를 저질렀다.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죄악을 똑똑한 사죄 한마디 없이 몇푼의 돈으로 어물쩍 덮어버리였으니 이런 매국《협정》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도 박정희역도는 큰뜻이 성취되였다고 뇌까리면서 졸개들과 같이 축하연을 벌려놓았다. 이어 《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단 30초사이에 날치기로 상정시키고 일제가 패망한지 20년이 되는 바로 전날인 1965년 8월 14일 《민주공화당》패거리들끼리 순식간에 비준하여버렸다.

매국적인 《한일협정》은 이렇게 세상에 삐여져나오게 되였다.

지금 일본당국은 54년전의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해결되였다고 떠벌이면서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경제침략행위에 미쳐날뛰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아베가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은 수십년전 몇푼의 돈으로 일본의 과거범죄를 어물쩍 덮어버린 박정희의 친일매국행위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유신》독재자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터치고있다.

《자한당》의 조상인 박정희역도의 친일매국행위야말로 《을사오적》을 릉가하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민족반역의 범죄행위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세계가 지켜보는 일본, 언제까지 뻔뻔스러울것인가

일본의 강도적이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이후 이남에서 대중적반일투쟁, 《NO 아베》투쟁이 련일 계속되고있다.

특히 8.15를 맞으면서는 이 투쟁이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아베당국이 애써 부인하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명백히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한 이남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사실 전범기업의 책임을 규제한 이남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은 너무도 정당한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의 밑바탕에는 과거범죄를 대하는 일본의 부정적심리가 깔려있다.

이것은 단지 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한한것이 아니다.

저들의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해나서는 일본의 태도에서 도이췰란드가 떠올려지는것은 무엇때문일가.

같은듯 다른 두 나라

도이췰란드와 일본은 다같은 전범국, 전패국이다.

지난 세기 30년대 세계를 아리아족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히틀러의 광기는 유럽을 참혹한 전쟁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었다. 타민족학살을 부르는 히틀러도이췰란드의 침략의 무한궤도는 유럽대륙을 통채로 뒤흔들었다. 뽈스까에서만 전체인구의 17.2%에 달하는 602만 8 000명의 희생자가 났다. 뽈스까남부의 작은 도시 오스벵찜에 있는 한개 수용소에서만도 유럽 각지에서 끌려온 유태인과 반파쑈투사 400만명이상이 잔인하게 학살당하였다.

반파쑈력량의 진격으로 나치스도이췰란드의 강점지역들이 해방되는 곳마다에서 히틀러교형리들에 의해 저질러진 치떨리는 살륙만행의 흔적들은 전쟁의 참상에 익숙한 련합군병사들마저 얼굴을 돌리게 했다. 파쑈도이췰란드가 과거 유럽에서 감행한 침략과 학살의 만행들은 그렇게도 잔혹한것이였다.

지구의 서반구에서 파쑈도이췰란드가 피비린 광기를 이어갈 때 동방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전역을 송두리채 집어삼킬 야망밑에 대륙침략전쟁을 확대해갔다.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교두보확보를 위해 지난 세기초에 조선을 강점했던 일제이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조선을 아비규환의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해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해외침략전쟁터들과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그리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가 몸서리치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륙하였다.

조선에서만이 아니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중국의 남경에서만도 30만명을 학살했다. 일제가 남경대학살과정에 감행한 《백인참》(100명의 머리를 먼저 베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의 만행은 오늘도 중국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여있다.

《대동아공영권》의 무서운 야망에 함몰된 일제의 침략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일본군국주의의 군화발이 가닿는 아시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륙만행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도이췰란드의 용기, 일본의 도덕적저렬성

1970년, 도이췰란드(이전 서부도이췰란드)의 브란트 총리가 뽈스까의 유태인희생자기념비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였다. 그는 국가를 대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용기있는 행동에 세인은 박수를 보냈다.

유럽나라들도 도이췰란드를 향해 안으로 굽어만 들던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그후에도 도이췰란드의 대통령과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 나치스에 의한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도이췰란드의 현 메르켈 총리도 와르샤와의 유태인희생자기념비앞에서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사죄를 표시하고 《도이췰란드는 전쟁당시를 기억할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다시금 선언했다.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도이췰란드에서는 나치즘을 미화하고 선전하는 행동이 비법으로 간주되고있다.

과거에 대한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이미 피해국가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도이췰란드는 과거와 같은 죄악과 불행이 되풀이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세계의 수십개 나라와 수백수천만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이어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시범죄시효자체를 페지해버리고 90이 지난 고령이 든 누구든 관계없이 나치스범죄자들에 대해 준엄한 선고를 내리고있다.

이렇게 도이췰란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두터이하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은 피비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은커녕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식민지국가들을 위한 《해방전쟁》으로,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 등으로 외곡하는데 여념이 없다. 과거 일제에 의한 침략과 략탈, 학살의 만행들이 아시아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새겨져있는데도 말이다.

《독도는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뿌리깊은 망언도 과거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력사를 정당화하는것이다.

한때 일본은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등 과거범죄와 관련하여 형식상 《사죄》하고 《반성》하는 듯 한 냄새를 피우기도 하였었다. 그것마저도 그때뿐이였다. 정권이 바뀌여 과거범죄를 다시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철면피한 행동에 계속 매달리였다.

대를 이어가는 일본정치인들의 집단적량심의 마비는 가히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광기는 아베가 수상의 자리에 앉은 이후 절정을 이루어왔다. 그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있지 않다.》,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력사가들의 론의에 맡겨야 한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한 망언은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뿌리깊은 야욕을 잘 보여준다.

도이췰란드가 과거범죄에 대해 시효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죄와 배상을 세기를 이어 해나갈 때 이렇게 일본은 주먹안의 미꾸라지처럼 과거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해왔다.

한가지 간단히 언급할것이 있다. 일본의 조선침략력사에 《운양》호사건이라는것이 있다. 1875년 8월 일제가 군함 《운양》호를 강화도에 침입시켜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8월 21일 강화도 초지진포대로 접근하였다가 수비병들에 의해 되게 혼쭐이 났던 《운양》호는 그 《보복》을 한다며 23일에는 비교적 방어력이 약한 영종도에 침입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나중에는 불을 질러 섬을 완전히 페허로 만든 후 도망쳤다.

이런 야만행위를 감행하고도 도리여 조선봉건정부에 《사죄》를 요구했던 뻔뻔스런 일본이다.

일본의 현 지배층은 력사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그 누구의 《오보》에 의해 《날조》된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인신매매피해자》로 모독하는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몇년전 아베가 과거 일제의 극악한 세균전부대인 731부대를 련상케 하는 731군용기에 올라탔다. 아시아인민들뿐아니라 세인은 전률했다. 과거의 범죄에 력사적결별을 한 도이췰란드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현시대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의 침략열로 달아오른 모습을 본것이다.

당시 이남의 한 언론인은 이를 두고 《아베의 언행은 인류리성과 량심에 대한 생체실험이다. 이제는 아예 인류가 마루따(통나무)가 되여버렸다.》고 일갈했다.

일본의 군국화, 우경화는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재침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침략의 피성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실지에 있어서 아베정권은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이런 일본을 누가 신뢰하고 받자고 하겠는가.

일본을 보고, 일본을 생각할 때면 《나쁜 사람과는 집에서도 무덤에서도 이웃이 되지 말라.》는 격언이 먼저 떠올려진다.

진실을 외곡하는 뻔뻔스러움, 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한사코 부정하는 도덕적저렬성,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또다시 군화발로 짓밟고 전쟁의 재난터로 만들려는 군국주의현훈증에 사로잡힌 무분별한 광기.

이것이 아시아나라들이 일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유이고 이들의 응어리맺힌 가슴속에서 일본이 지워지지 않는 리유이다. 또 일본이 물우에 뜬 기름방울처럼 우리 민족과 아시아지역인민들과 융합되지 못하는 주된 리유이다.

과거의 엄청난 죄악을 인정하고 진실로 그와 결별하지 않는 한 일본은 언제 가도 정상국가의 대접을 받을수 없고 밝은 미래에로 갈수가 없다.

* *

오늘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번영의 밑바탕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진하게 슴배여있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는 더 말하지 않더라도 지난 조선전쟁시기, 삼천리의 도시와 마을들이 불타고있을 때 일본은 미군에 살인무기들을 팔아서 《불속의 밤알》을 주어먹고 배를 불리였다. 지어 세균무기까지 팔아서 횡재를 한 일본은 조선전쟁을 가리켜 살길을 마련해준 《가미가제》(하늘이 도와주는 바람, 신이 보내준 바람)라고 불렀다.

이전 도이췰란드대통령 리하르드 폰 와이쯔재케르는 《자기의 력사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어디에 와있으며 무엇때문에 와있는지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과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제라도 이 말을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일본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싶으면 과거를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긍할수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3A, 즉 인정하고(Admit), 사죄하고(Apologize),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확약을(Assure)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일본이 유럽의 일원이 된 도이췰란드처럼 아시아인민들의 마음속으로 편입되는 길이다.

또 그 길만이 일본이 세계의 문을 두드릴수 있는 길이다.

오늘 이남에서 거세차게 타오르는 반일투쟁의 불길은 과거의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할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경제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철면피하고 횡포무도한 왜나라족속들에 대한 대중적분노의 폭발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본은 알아야 한다.

동아시아의 진정한 협력과 공동번영은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성근한 사죄와 배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재카나다동포 리문식

새로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아서 (6)

고난을 헤치고 광명한 미래에로

한장의 우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주체85(1996)년 발행된 우표인 《뜻깊은 설날에 전사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였다.

병사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피눈물의 1994년을 보내고 맞이한 새해의 첫 아침 다박솔초소에 력사적인 자욱을 새기신 절세위인의 웅지를 되새겨보았다.

뜻깊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포진지에 찍으신 령도의 자욱자욱은 총대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해나가실 애국의 의지가 력력히 어린 력사의 자욱이였다.

다박솔초소에 이어 오성산, 철령, 초도 등에로의 멀고 험한 전선길에 어린 헌신의 자욱을 새겨안으며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공화국은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로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할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적시였다.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부강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보며 세상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외국의 한 정계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겪고있는데다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사실은 세계인민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있다는 징표이다.》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한장의 우표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돌파를 알리는 장엄한 뢰성인양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된 1998년의 환희를 되새겨보게 하는 우표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어낸 자력자강의 창조물이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장쾌한 모습을 담은 우표가 전하는 사연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과 류례없는 자연재해로 하여 그토록 어려운 길을 걸어온 공화국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백배로 다져준 력사적사변인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발사는 온 세계에 사회주의 조선의 자랑찬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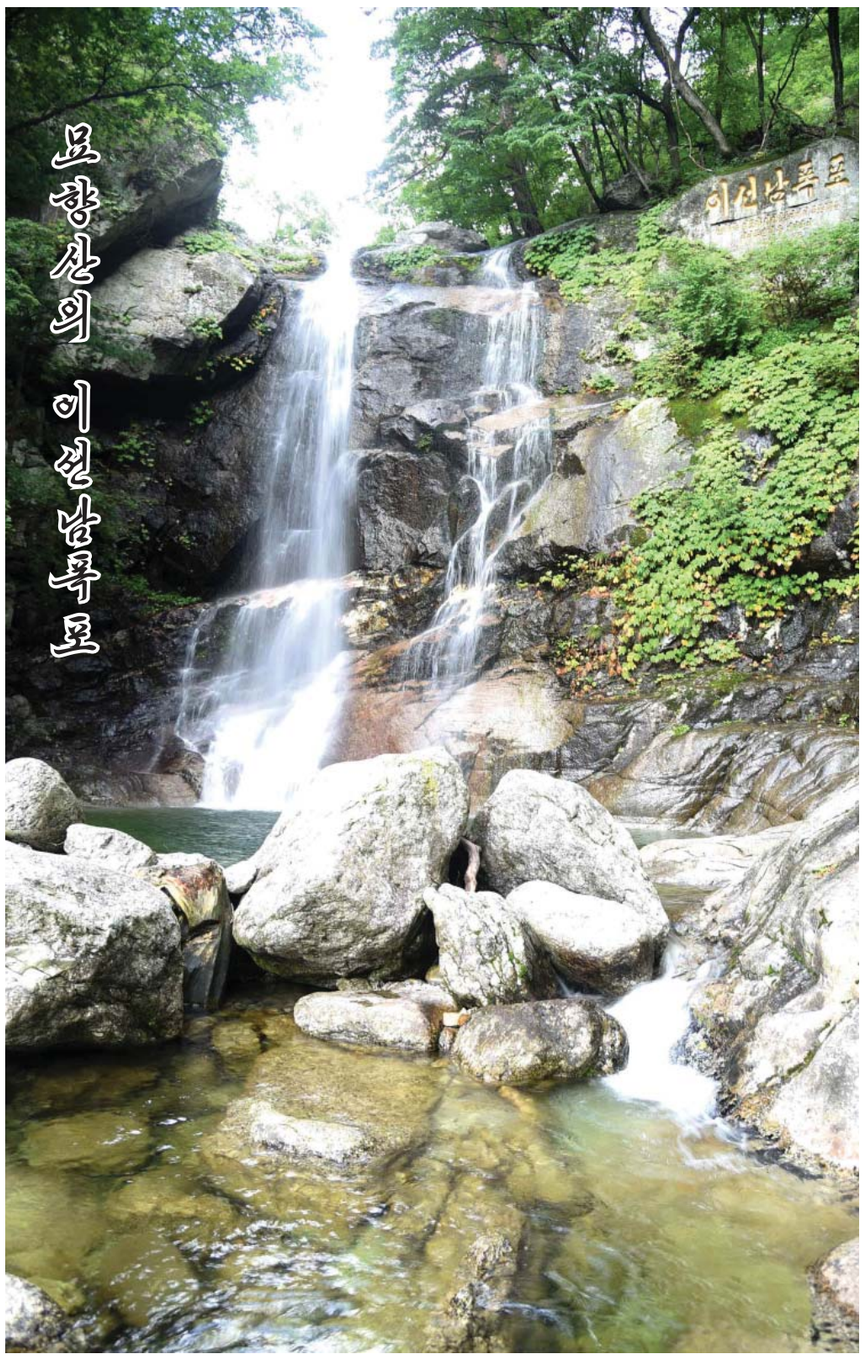
당시 외국출판보도물들은 격동적인 그 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했다.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노래가 우주로부터 울려오고있다. 조선의 첫 위성이 발사되였다.》, 《조선이 위성을 쏴올리는 기술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계에서 세력균형이 변화될수 있다. 조선이 우주를 개발하고있다.》

…

정녕 겹쌓이는 고난속에서도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공화국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류현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들 창작

공화국에서 산업미술부문 창작가들과 교육부문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올해에 들어와 2만여점의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였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 평양미술종합대학,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산업미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두뇌전, 실력전의 열풍을 일으켜 다양한 주제의 산업미술도안들을 내놓았다.

대형화물자동차, 굴착기를 비롯한 중기계들과 강냉이종합수확기도안 등에는 더 좋은 자기의것을 설계하고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창작가들의 지혜와 열정이 어려있다.

백두산종합박물관 방향안내표식판도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크도안, 염분진호텔 마크도안들도 건설의 대번영기에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면모를 상징하고있다.

또한 인민들의 문명한 래일을 그려주는 모란봉—릉라인민유원지 공중삭도도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리용할 관광용궤도전차도안, 호텔, 료양소, 휴양소의 마크도안들도 창작되였다.

한편 동평양피복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형태, 상표도안들, 여러가지 양말, 의상, 안경 등 사람들의 성별, 년령, 취미에 따르는 필수품, 기호품들의 도안들 그리고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구현된 각종 마크, 상표도안들도 창작되였다.

산업미술부문 창작가들과 교육부문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며 시대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오염을 방지하는 나무들

산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키나무이다. 산잣나무는 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매우 크다. 한그루의 다 자란 산잣나무는 해마다 1t의 먼지를 잡는다.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작은키나무인 측백나무는 높이가 보통 5~10m이며 암수한그루식물이다. 측백나무는 먼지와 연기에 잘 견디므로 산업지구의 록화에 쓰인다. 또한 대기속에 들어있는 이산화류황과 염소가스 등 유해가스를 흡수한다.

은행나무는 잎지는 넓은잎키나무이며 암수딴그루식물이다. 은행나무는 연기, 먼지에 견디는 힘이 세므로 공장지대의 정원수, 가로수로 심는다.

아카시아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잎지는 키나무이다. 아카시아나무는 생활력이 세며 빨리 자란다. 아카시아나무는 이산화류황, 염소가스 등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느릅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작은키나무이다. 느릅나무는 이산화류황, 염소, 불소 등 유해가스와 연기 등에 잘 견딘다. 또한 먼지잡이능력이 세다.

본사기자

운동과 건강

운동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운동을 할 때 수축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곧 근육속에 뻗어있는 모세혈관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결국 몸안의 피흐름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며 나아가서 혈관계통의 질병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데서도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운동에 의한 근육의 수축작용은 곧 제2의 심장활동과도 같다고 말할수 있다.

또한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폐활량을 늘이고 근육을 발달시켜 로화를 방지하며 관절을 보호하고 몸균형을 바로잡아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흐름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피속에 지방과 혈당이 쌓이게 되며 그렇게 되면 혈관계통질병뿐아니라 당뇨병, 비만증과 같은 각종 질병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근육이 쇠퇴되면서 관절의 부담이 커져 관절아픔이 생기며 나아가서는 자세의 변형으로 허리아픔을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의학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백가지 약을 쓰는것보다 운동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누구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것을 호소하고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운동을 왕성하게 할수 없으므로 산보, 천천히 달리기, 률동체조, 수영 등 육체적부담이 적고 하기 쉬운 운동과 힘든 운동을 적절히 결합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여러모로 좋은 장미

문화정서생활에서 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특히 향기가 그윽하고 꽃이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는 꽃들중의 하나이다.

장미는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잎지는 떨기나무이다.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있으며 《꽃중의 황후》로 불리우고있다.

장미는 붉은색, 흰색, 노란색, 분홍색, 감색을 비롯하여 꽃색이 대단히 많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장미품종만 하여도 매우 많다.

장미는 꽃다발이나 꽃묶음, 화단조성, 방안이나 정원장식 등 관상용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장미는 용도에 따라서 꺾음꽃장미, 화단용장미, 화분용장미, 식용장미로 나눈다.

꺾음꽃장미는 장미포기에서 꽃송이를 잘라내여 그대로 리용하거나 꽃다발, 꽃묶음, 꽃바구니를 만드는데 리용하는 장미로서 가장 고급한 장미이다.

화단용장미는 정원이나 공원, 도로, 건물주변 등에 화단을 조성하고 재배하여 감상하는 장미이다.

화분용장미는 화분에 심어 재배하는 장미로서 방안이나 정원에서 화분상태로 감상하는 장미이다.

장미는 예로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되여왔으며 집안의 곳곳에 꽂아놓아 실내를 장식하는데도 리용되여왔다.

장미꽃을 리용하여 실내를 장식할 때에는 꺾음꽃뿐아니라 말린꽃 등을 만들어 리용하기도 한다.

장미는 화장품이나 식료품재료로뿐아니라 병치료에도 리용되는것으로 하여 그 경제적의의는 자못 크다.

장미의 꽃잎은 비타민E와 비타민K를 함유하고있어 피부재생에 효과적이다.

장미는 많은 량의 비타민C와 비타민A,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있어 피부보습은 물론 피부재생과 피부진정에 효과적이다.

장미는 향수를 만드는데 널리 리용되고있다.

장미의 화려하고 풍부한 향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신경안정작용을 한다.

또한 우울증을 낫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머리아픔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듯 여러모로 좋은 장미를 어디서나 널리 심고 가꾸면 보다 정서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풍치를 돋굴수 있다.

본사기자

사화

조헌과 7백의사 (1)

글 오희복, 그림 채대성

조헌은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이른새벽 이슬을 헤치며 마을길을 거닐고있었다.

풀길없는 번뇌가 계속 머리를 짓눌렀다.

(왜적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노리고있으니 종내는 쳐들어오고야말것인데 나라의 방비는 보잘것없구… 청주성도 허술하고 연안성도 중요지점인데 성안에는 물조차 없으니… 벼슬길에 있을 때도 상소를 올린바 있으나 끝내 뜻을 못 이룬채 벼슬을 던진 몸. 그렇다고 오늘 또 비분강개하여 부질없이 날만 보내는것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길은 아닐것이다. 그 어떤 일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난을 무릅쓰고 해내야 할것이다. …)

마을어귀에 들어서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조헌은 결연히 마음을 다지며 집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왜적이 멀지 않아 침입할것입니다. 연안은 틀림없는 서북의 요새로 될것이온데 성안에 물이 없는것이 념려됩니다. 급히 땅을 파고 북신당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면 요긴하게 쓰일것입니다. …》

이날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글을 여러곳에 띄웠다.

…

조헌이 우려하던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바다를 건너온 근 20만의 왜적들은 부산에 발을 들여놓자 거침없이 북으로 밀려들었고 무능한 통치배들은 성을 버리고 뿔뿔이 달아났다.

민심은 물끓듯 하였고 나라는 삽시에 란리에 휩싸였다. 벌써부터 우려하던 일이기는 하나 너무도 놀랍고 통분한 소식을 들은 조헌은 치솟는 증오로 하여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잔악무도한 놈들…》

1592년 7월초에 공주에서는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쳐물리치자는 격문을 보고 사처에서 모여온 일천 칠백여명으로 조헌이 무은 의병대가 조직되였다.

조헌은 이에 앞서 4월에 옥천에 있을 때에도 사처에 격문을 띄웠고 그때 격문을 받은 백성들이 무려 오천여명이나 모였었다.

그러나 충청감사 윤선각의 지시를 받은 옥천군수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벼르고 달려왔던 백성들이 거의다 흩어지자 조헌이 이번에 공주에서 다시 의병부대를 무었던것이다.

《조헌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 어른은 한번 칼을 휘두르면 수백명씩 적을 쓸어눕히는 장수라우.》

이러한 말들을 주고받는 백성들은 날마다 쌀을 지고 의병부대를 찾아왔고 무기를 만들어 쓰라고 농쟁기를 갖다바쳤다.

밤낮을 이어 쇠를 벼리는 소리가 마을에서 울렸고 의병들은 창, 칼 쓰는 법을 익혔다.

이때 청주는 이미 적의 손에 들어가있었다.

그리하여 의병부대는 우선 청주의 적을 치기로 하였다. 조헌을 따라 공주를 떠나는 의병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밤낮 이틀을 달려간 그들은 청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르러 둔을 치고 몇사람의 정찰을 청주로 띄웠다.

이튿날 돌아온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였다.

《충청도방어사 리옥이 거느린 관군들은 싸움이 시작되자 겁에 질려 달아나고 승장 령규의 부대가 수백명의 적을 족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고에 없는 국난을 당하여 어찌 산속에서 목탁만 두드리고있겠는가. 어서 일어나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자.〉는 령규대장의 말에 목숨을 걸고 나선 중들이랍니다. …》

산속에 묻혀 부처를 숭상하던 중들조차 위급한 나라의 운명을 건지고저 한몸 바쳐 나서고있지 않는가. 적의 기세가 아무리 사납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적을 족칠수 있다.

조헌부대의 모든 의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이런 감동어린 생각들이 오고갔다.

그들은 승병들과 합세하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하였다. 청주성 가까이에서 승병들과 만난 그들은 적을 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8월 1일 동녘하늘에 한줄기 빛발이 비칠무렵 불시에 성이 떠나갈듯 한 함성이 오르고 북소리, 징소리 요란히 울리더니 성안으로 화살이 비발치듯 날아들어갔다.

간밤을 타서 서문밖에 둔치고있던 의병들이 미리 작정한대로 성을 들이친것이다.

의병들을 얕잡고 늘어지게 잠을 자던 적들은 잠결에 성밖으로 달려나오기는 하였으나 된벼락을 맞고 허둥지둥 성안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수적우세를 믿는 적들은 더 많은 군사를 몰아 덤벼들었다. 가렬한 싸움은 한나절이나 계속되였다. 적들은 이번에도 많은 주검을 남긴채 성안으로 달아났다. 의병부대의 기세에 눌린 놈들은 형세가 불리해진것을 깨닫자 밤을 타서 도망치고 말았다.

이번 싸움에서 방어사 리옥은 북문에 관군을 매복시켜두었다가 타격을 받고 달아나는 적을 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공만 탐내고 싸움에 뜻이 없던 리옥은 적들이 도망갈 기미가 보인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싸움터로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때 윤선각이 조헌과 친한 사람을 시켜 금산의 적을 함께 치자는것을 전해왔다.

금산에는 당시 전라도, 충청도를 노리는 적의 대부대가 둥지를 틀고있었다.

윤선각으로 말하면 조헌이 의병을 일으키던 초기에 훼방을 놀던자였다. 그자는 조헌이가 각 도에 보내는 격문을 통해 자기의 비행을 폭로한데 대하여 계속 앙심을 품어오고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제의를 한것은 적을 치자는데 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정작 의병부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비렬한 행동들이 날날이 폭로되리라는것을 짐작하고 이를 막아보자는 속심에서 나온것이였다.

조헌은 윤선각의 이러한 심사를 눈치채지 못한바 아니였으나 우선 나라를 삼키려는 왜적들을 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주로 들어갔다.

고구려자

고구려자는 1자의 크기가 35㎝로서 건축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기준척도로 널리 리용되였다.

놋이나 철로 만든 고구려자는 서로 수직으로 련결된 길이 49.5㎝의 긴 팔과 23.1㎝의 짧은 팔로 되여있다. 기본눈금의 가장 작은 단위는 푼(1푼은 0.35㎝)이다.

긴 팔의 뒤면 바깥테두리에는 기본눈금의 단위길이를 한변으로 하는 바른4각형의 대각선길이를 단위길이로 하여 각눈금이 새겨져있는데 건축에서는 이것을 《금강비례》라고 한다. 이 각눈금에 고구려자의 특성과 묘리가 있어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발해는 물론 고려중엽시기에까지 도시설계와 건축, 농업, 수공업 등 경제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리용되였다.

고구려자는 면적이나 체적, 질량과 같은 다른 기본계량단위의 제정에서도 기초로 되였다.

고구려자는 이처럼 단순히 길이만을 표시하는 척도가 아니라 수학적지식이 반영된 종합적인 측정수단으로서 당시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

본사기자

유모아

《재간좋은》 식구들

부부가 외동딸을 데리고 살고있었다. 그들 셋은 정말 《재간》이 좋았다.

어느날 어머니가 이불을 꾸미면서 딸에게 말했다.

《애야, 아버지바지를 만들거라.》

《어떻게 만들가요?》

《뒤뜨락에 있는 나무가지에 대고 만들려무나.》

《네, 알았어요.》

얼마후 딸애가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바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뽑아낼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니 바지가 나무가지에 씌워져있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비자루를 들고 딸애를 때리려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불이 어머니치마자락에 매달려 끌려오면서 등잔대를 넘어뜨렸다.

어머니가 이불을 꾸미면서 자기의 치마자락을 같이 꿰맸던것이다.

이때 부뚜막을 쌓던 아버지가 소란을 피우는 모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못난것들, 내 부뚜막속에 갇혀있지만 않다면 버릇을 단단히 가르치련만…》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